

당선의 내항 (당선의 종류)

(唐船: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무역선)



난징선(南京船), 작자 미상, 시대불명 (1폭 지본착색 57.5cm×78.3cm)

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



닝보선(寧波船), 작자 미상, 시대불명 (1폭 지본착색 57.5cm×78.0cm)
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



광둥선(廣東船), 작자 미상, 시대불명 (1폭 지본착색 57.5cm×78.0cm)
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



태국선(暹羅船), 작자 미상, 시대불명 (1폭 지본착색 57.5cm×78.0cm)
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

당선(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무역선)은 출항지에 따라서 구치부네(口船)와 나카오쿠부네(中奥船), 오쿠부네(奥船)의 3종류로 나누었으며, 그 크기도 각각 달랐습니다. 난징선(南京船), 닝보선(寧波船)과 같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오는 배들은 구치부네라고 불렸습니다. 거리가 짧은 만큼 그 크기도 작았으며, 그중에는 사선(沙船)이라 불리는 중국의 하선(河船)도 내항하였습니다. 광둥선(廣東船)과 같이 거리가 조금 먼 곳에서 오는 배는 나카오쿠부네라고 하였고, 멀리서 오는 배는 오쿠부네라고 불렸습니다.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하는 오쿠부네의 경우 바다의 풍파에 견딜 수 있는 대형선박으로 선원들이 100명이 넘는 규모의 배였습니다.